

2023 진로 · 진학 토크콘서트 FGI 진행 운영 계획서

1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 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확인
- 학부모 인식 바탕 교육 정책 전략 수립
- 전라북도교육청과 학부모 간 소통 강화
- 전라북도 교육에 대한 공감도 및 호감도 제고
- 공교육 신뢰 향상의 해법 모색

2 추진 방향

- 전주 · 군산 · 익산권 FGI 실시 및 분석(초 · 중 · 고 · 특수학교)
- 지역별 FGI 분석 내용 및 특색, 현황 반영한 여론조사 도구 설계 및 작성
(교육청과 조사 질문 협의 후 확정-학력+진로진학)
- 전라북도 전체 학부모 대상 여론 조사 및 분석
- 분석 결과에 따른 전라북도 교육정책 현황 분석
- 토크콘서트에서 학부모 인식 결과 발표 및 대책 제안/ 간담회 등
- 추후 관련 보고서 교육청 제출

3 구체적 추진 계획

▲ 전라북도 학부모 진로진학 요구 인식 면접 조사(FGI)

- 일시
 - 전주(완산구): 2023. 09. 12. (화)
 - 전주(덕진구): 2023. 09. 13. (수)
 - 군산: 2023. 09. 19. (화)
 - 익산: 2023. 09. 18. (월)
- 대상: 전라북도 내 초 · 중 · 고 · 특수학교에 자녀가 재학중인 학부모
 - 전북 교육정책 ‘지지’ 그룹 3명, ‘중립’ 그룹 3명, ‘반대’ 그룹 3명
 -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 수렴

○ 방법: 대면 심층 면접

○ 내용

- 전라북도교육청 공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FGI 참여 학부모 모집
- 설문 항목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도에 따른 인원 선별 가능

▲ FGI 진행장소

권역	장소	내용
전주	[완산구] 스페이스코워 전북도청점	  <p>-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5, 춘광빌딩 2층 -전용 주차장 보유(무료)</p>
	[덕진구] 스페이스코워 전주캠퍼스점	  <p>-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37, 상진빌딩 5층 -전용 주차장 보유(무료)</p>
군산	그루스터디카페 군산조춘동센터	  <p>-전북 군산시 미장14길 35 은총빌딩 2층 -장소 앞 세무소에 주차 가능(무료)</p>
익산	플랜에이 스터디카페 익산영등센터	  <p>-전북 익산시 무왕로13길 13 4층 -룸 2개 대관 가능, 푸드존도 이용 가능 -장소 앞 영등동주민복지센터에 주차 가능(무료)</p>

▲ FGI 진행사항

- 학부모 그룹별로 1회 90분 진행
 - FGI 문항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1회 120분까지)
- 학부모 연락, 응대 및 안내, FGI 진행, 녹취 등 전담 인력 2인 1조 투입

시간	내용	비고
~10:00	FGI 준비	다음 FGI 학부모 대기실 안내, 신원 확인 및 응대
10:00~11:30	전라북도 교육 정책 학부모 그룹 FGI	사진촬영 및 녹취
11:30~12:00	추가 질의응답	예비 시간

※ 진행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및 거주 지역의 교육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습니까? 교육청에서 받은 정보와 학교에서 전달되는 정보가 한데 어울려야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Q. 높은 교육자질향상이란 무슨 뜻입니까? 학교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일반 학교와 고교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A. 높은 교육자질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의 양과 질을 통해 나타난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유동하는 학교 양과 질, 학교교육이 되는지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일반 학교와 정보 나누기가 힘들다. 우리가 정보화시대 진입이 어렵다. 보충은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일찍 있는 교사들이 잘 모르겠습다.
교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미국의 교육은 혼란이다. 교육 예산을 다양한 교육에 투자
하면 좋겠다.

B. 문화활동, 체육 활동이 부족하다. 인터넷도 홍보가 부족해서 기회조차 놓치는 한다. 교
육지원청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가족 위주. 체육 활동을 하는데, 장갑 신고서도 필요로 하는
교육은 많이 부족하다.

C. 비슷한 의견이다.

[illegible][illegible][illegible]

가) 아래는 참이 맞습니까?

A. 모든 보편언의 제귀호칭이 있는 것과는 같은 것은 참이 아니다. 보편언은 존재론적
 학목에 한정하여 일관성이 아닌, 제귀호칭 시문법적 관용어로서 한다. 학목론에 관하여가
 어렵다. 학목론을 논하는 학목론자가 구별되어 학목론을 한다.

B. 모든 보편 교육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영교육, 원교육, 실험 제교가 필요하다.

C. 교육, 문학, 예술, 사생태에 한하여도 영교육, 원교육을 논하는 사람. 영교육, 도통, 문예
 교육, 제귀호칭, 제귀호칭이 있어야 한다. 영교육을 논하기 위해 제귀호칭, 문예, 문예
 있는 교육, 제귀호칭, 영교육을 한다. 작은 지역, 산간지역을 강사, 제귀가 어렵다.
 지역이 필요하다.

[illegible][illegible][illegible]

<FGI 진행 및 녹취 예시>